

3천년 전 솔로몬 왕은 왜 인생이 헛되다고 했을까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

탁인석 | 시와사람사 | 1만5000원



세 번 째 수필집을 내면서 작가 탁인석은 솔로몬 왕이 남긴 최후의 말을 떠올렸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3000년 전, 이스

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고 지혜의 아이콘으로 각인된 솔로몬은 왜 마지막에 ‘인생이 헛되다’고 했을까.

광주문인협회장을 지낸 수필가 탁인석(사진)씨가 세 번째 에세이집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시와사람 刊)을 펴냈다. 작가가 글을 쓰는 효용성을 ‘인간탐구’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작가는 허무를 극복하고, 그리하여 살아있음의 기쁨을 규명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고백한다. 이번 글은 ‘문화마이더스 탁인석의 세평에세이’라고 책의 성격을 스스로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세평(世評) 에세이’다. 그런 만큼 책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작가의 고뇌와 상상력이 문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필가 탁현수는 이런 그의 에세이를 두고 “다산 정약용의 문학관이 머릿속



을 지배했다’고 썼다. 실(實)한 세상, 화(和)한 세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연민이라는 뜻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책은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담론을 개진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는 한편, 역사와 사회 인식 차원의 글을 통해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규명하고 있다. 호남의병부터 광주8경과 향교의 재발견, 5·18이 꿈꾼 미래세상까지 그가 관심을 갖는 분야도 다양하고 깊다. 대마도에서 만난 면암 최익현과 예술이 없는 ‘예술의 거리’에서는 모든 예술 장르가 장날처럼 어울려 북적이길 바라는 그의 염원이 담겨있다. 글쓰기는 전방위적으로 그 뿌리가 튼실해야 하고 역사의 식 또한 필요 덕목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게 탁인석의 설명이다. 언어의 힘은 국민 창의성의 바탕을 이루고 국민 창의성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라잡이가 되는 만큼 한글이 발전하고 세계화될 때 역사의식은 한결 덩실해질 것이라는 것도 그가 가진 믿음이다.

앞서 그는 전작 에세이 ‘문학이라는 방법’에서 광주문학의 미래, 작가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성공하는 축제의 모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 나주에서 태어난 수필가 탁인석이 평생 천착해 왔던 영산강은 그의 문학적 토대이면서 상상력의 공간이었다. 이번 수필집에서도 그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담론을 개진했다.

탁인석 작가 제공

델, 인문학의 중요성, 자본주의의 오류인 빈부격차, 우리 시대 만연한 웹서핑의 장단점 등 문화와 문화 전반에 시각을 특유의 사회적 언어로 펼쳐냈다.

탁인석 작가는 “글쓰기는 한마디로 인간탐구를 하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정작 장르 선택에 있어서는 답이 없다”면서 “이번 수필집은 문화가 대세고 대박이 되는 시대에 문화든 문학이든 계속적

인 발전에 대한 나의 열망을 독자들에게 어필해보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캄캄한 사막의 밤에 낙타들이 저마다 ‘인식’의 짐을 싣고 비록 헛되기는 하더라도 죽기 전에 도달해야 할 오아시스를 향해 한발 한발 가고 있다는 게 인생이라는 탁인석. 그레! 인생은 짧고 약속은 못 지키고 그러니 별빛 찾는 낙타처럼 무한정 걸을 수밖에.... 그가 이번 수필집 제목을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로 한 이유다.

나주에서 태어난 탁인석 작가는 1992년 ‘수필과비평’ 신인상과 1993년 ‘문학춘추’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뒤 그동안 ‘역사, 미래 그리고 교육’, ‘영시와 비평’, ‘문학이라는 마법으로’ 등을 펴냈다. 광주대학교 교수와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광주시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영웅을 통해 본 반만년 역사의 흐름

벌거벗은 한국사 : 영웅편

tvN STORY ‘벌거벗은 한국사’ 제작팀 | 프론티페이지 | 1만8800원



tvN STORY 간판 프로그램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가장 사랑받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역사강의의 중가장 생생하고 흥미롭다는 찬사를 받는 ‘벌거벗은 한국사’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이 안내하는 한국사 스토리텔링쇼로 입지를 굳혔다.

1597년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에 맞서 명장 이순신의 지휘로 명량해전이라는 대승을 거둔 해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어명을 내려 이순신을 의금부로 압송했고 이후 이순신은 직책을 잃고 다른 지휘관을 보좌하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죄인이라는 이유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이순신. 여러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승승장구한 그에게 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까? 승리의 영광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그의 삶 이면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이후 몰락한 집안의 이봉창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본인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 식민지 조선에 잘 적응해 나가려 애썼던 그가 돌연 상하이행을

결심하고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만나 일왕 암살을 도모하는데!

자신을 신일본인이라 여겼던 그는 왜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 일본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한 그날, 도쿄 한 복판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그의 거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책은 조선 시대 최고의 명장이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인간 이순신의 아픔부터 신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이봉창이 일왕 암살을 시도하게 된 사연까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 8인의 이야기를 총망라했다. 그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제시한 그들의 희생정신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지혜에 관해 생각하고 깨우치게 된다.

역사 안내자로 나선 최태성은 이 책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시대에 간혀 있지 않고 후손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백성으로 노예적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에 ‘자유’를 외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도 했듯 반만년 한국사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안긴 역사의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있다.

독자는 각 인물이 지닌 사연 하나하나에 몰입하고 감동하면서 사건과 시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어렵고 지루했던 한국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편의 드라마로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도선인 기자

투자를 넘어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예술’

아트 컬렉팅

루트 폴라이트 리허르트 | 니케박스 | 2만 2000원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재화를 끊임없이 구매하며, 때로는 값비싼 사치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도 선뜻 돈을 지불한다. 그런데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미술품을 선뜻 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미술 시장은 소수의 특권층과 유명 미술관이 주도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 미술시장은 종종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매 최고가 기록으로 왜곡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만달러 이하의 미술품도 아주 많고 신진작가들의 작품은 5000달러 이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한동안은 어떤 작가가 성공

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부 비밀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기술발전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작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경매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가격 정보와 이전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투자를 넘어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아트 컬렉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의 가치에 주목하며, 독자들을 미술품시장으로 초대한다.

저자 루트 폴라이트 리허르트는 독일과 영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아트 마케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술관과 경매회사, 갤러리뿐 아니라 금융권 및 컨설팅 분야에서도 일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미술시장 전문가다. 미술계와 금융계를 폭넓게 경험하고 비교한 끝에 저자는 더 많은 사람이 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미술품 구매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먼저 미술시장에 대한 선입견을 둘러본 후 미술시장에 작용하는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미술사와 미술품의 종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개괄한다. 미술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작품의 품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알려줄 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고안한 기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 7단계를 정리해 현명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적인 경험담과 미술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뉴스, 미술시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독자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미술시장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며 아트 컬렉팅 입문을 도와준다. 특히 2023년 최신 개정판을 번역한 이 책에서는 NFT와 인공지능 등 지금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짚고 있다.

도선인 기자

지구에 처음 온 사람처럼

전유성 | 허클베리미디어 | 1만6800원

개그맨 전유성이 에세이를 펴냈다. ‘개그맨의 개그맨’ ‘멘토의 멘토’로 불리면서 많은 후배가 찾고 따르는 이. 그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 이름 앞에 ‘개그맨’이라는 말을 붙여 대한민국 예능판에 새로운 장르를 열었으며 그밖에도 공연기획, 광고,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창의성을 발휘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운 것과 보고 싶은 사람, 감탄한 일과 안타까운 일, 이루었던 일과 꼭 하고 싶은 일 등 70여년 쌓인 삶의 편린들을 가까운 이들과 잡담하듯 톡톡 던진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정희원 | 한빛라이프 | 1만8000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를 작심하고 전하는 감속화 실천법. 70세가 되었을 때 젊은 성인과 비슷하게 활기찬 삶을 영위하느냐, 침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느냐의 차이는 지금부터의 내재역량 관리에 달렸다. 실제 미국의 성인 72만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 요인에 따라 40세를 기점으로 남성은 24년, 여성은 21년의 수명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책에서 소개하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 관리법을 실천하면 또래보다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2000년생이 온다

임흥택 | 도서출판11% | 1만8000원

‘90년생이 온다’에서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낮은 존재인’ 90년생들에 대한 위트 있는 통찰로 주목받았던 임흥택이 ‘조합리, 초개인, 초자율의 탈회사형 AI 인간’ 2000년대생에 대해 다뤘다. 2000년대생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살아왔다.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미래의 새로운 소비자층이자 신규 인력으로서 2000년대생을 다룬다.

